

# 이범호의 승부사 기질... KIA, 2위는 확실히 잡는다

LG와 3연전 위닝 시리즈 확보  
투타서 고른 활약... 작전도 적중  
NC·두산·LG·삼성에 16승 3패  
17일까지 5.5경기 차 선두 수성

KIA 타이거즈와 KBO 리그 2위 팀이 만나면 순위표가 요동친다. NC다이노스부터 두산베어스,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까지 모두 1위 KIA만 만나면 순위 하락을 면치 못했다. 16승 3패, 놀라울 정도로 2위 팀에게는 강한 면모의 호랑이 군단이 다.

KIA는 지난 1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서 14-4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13차전에서도 3-2 역전승을 챙겼던 KIA는 LG와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며 올 시즌 67승 2무 46패(승률 0.593)를 기록했다.

반면 LG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됐다. LG는 올 시즌 60승 2무 51패(승률 0.541)로 KIA와 격차가 6경기까지 벌어졌고, 5.5경기 차인 삼성(62승 2무 52패·승률 0.544)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번 주말 3연전 앞선 두 경기에서 KIA는 투타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다. 16일 경기에서는 선발 김도현이 4.1이닝 1실점으로 조기 강판됐지만 김기훈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지난 1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뒤 결승 홈런을 친 나성범을 격려하고 있다.

(0.2이닝)과 장현식, 궤도규, 이준영, 정해영(이상 1이닝)이 4.2이닝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LG 타선을 꽁꽁 묶었다.

이어 17일 경기에서는 선발 에릭 라우어가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뒤 김대유(1이닝 1실점)와 이준영(1이닝 무실점), 김사운(2이닝 2실점)이 최소 실점으로 마운드를 책임지며 두 경기에서 6실점

만 내주는 잔물 수비를 구축했다.

타선은 홈런포로 흐름을 한 방에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경기에서는 0-2로 뒤진 9회초 김도영의 적시 2루타로 한점을 추격한 뒤 나성범의 투런포로 역전승을 완성했다.

이어 17일 경기에서는 0-1로 뒤진 5회초 나성범의 솔로포로 동점을 이룬 뒤 5-1로 앞선 6회초 김도영의 만루포에 이어

소크라테스의 솔로포로 백투백 홈런을 터트리며 10-1, 두 자릿수 득점을 채우며 쉼기를 박았다.

투타가 좋은 흐름을 조성한 데는 이범호 감독의 존재감도 컸다. 이 감독은 16일 경기에서는 8회말 체크 스윙이 명백히 절반 이상을 넘었음에도 3루심이 불을 선언하자 더그아웃을 뛰쳐나가 강력한 항의로 선수단의 사기를 자극했다. KIA는 이 향

의 직후 수비를 무실점으로 마무리한 뒤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또 17일 경기에서는 1회초와 2회초, 4회초에 무려 세 개의 병살타가 나오자 과감한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했다. 특히 선발 손주영이 조기 강판되고 정우영이 마운드에 오르자 지명타자 이우성의 타석에 최원준을 대타로 내 불넷을 얻어냈고, 김태균을 대신해 투입된 한준수는 2타점 적시 2루타로 3-1에서 5-1까지 격차를 벌렸다.

투타에 벤치의 작전까지 모든 흐름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KIA는 올 시즌 2위 팀을 상대로 절대 우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2위 팀에게만큼은 펄펄 나는 모습이다.

이 기본 좋은 징크스의 시작은 4월19-21일 NC와 3연전이다. 당시 KIA는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긴 뒤 5월17-19일 NC전을 싸늘이했고 5월24-26일 두산전과 6월18-20일 LG전은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다. 이어 7월9-11일 LG전에서 스윕, 7월16-18일 삼성전에서 위닝 시리즈(2승·1경기 우천 취소)를 거뒀다.

2위 팀과 맞대결을 모두 합하면 19경기에서 16승 3패, 승률은 무려 84.2%에 이른다. KIA가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굳건히 선두를 수성하고 있는 데는 유독 2위 팀만 만나면 모두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여수한려초 임지율,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 2관왕

자유형 50m·100m ‘金·金’  
4차례 대회新... 최우수선수상  
전남 수영 금 2·은 4·동 4개

여수한려초 임지율(4년)이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에서 4차례 대회신 기록을 세우면서 2관왕에 올랐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임지율이 지난 9~14일 전북 전주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유년부 50m와 100m에 출전해 예선과 결승에서 대회신기록을 4번이나 갈아치우며 대회 2관왕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임지율은 자유형 50m 예선에서 30초 40 기록으로 종전기록(30초86)을 0.46초 앞당기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30초2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지율은 자유형 100m 예선에서도 1분06초07의 대회신기록(종전 1분06초34)과 함께 결승에 올라 1분05초92 기록으로 자신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수영은 임지율의 금 2개를 포함 은



4개와 동 4개 등 총 10개의 메달 획득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한명환(오성초 3년)이 유년부 배영 50m 은메달을, 김하울(오성초 3년)이 평영 50m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문승유(영암초 5년)가 초등부 평영 100m 은메달을, 장운(영암초 6년)이 배영 50m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이은성(전남체중 2년)과 김운진(전남체중 3년)은 각각 중등부 배영 50m 은메달과 자유형 100m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오석진·정현우·정태준·권가은·변수현·김연우·오진혁으로 구성된 전남체중 수구팀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전국무대에서 다수의 메달획득과 대회신기록을 4번이나 갈아치우며 활약한 전남 꿈나무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롭다”며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아시아 무대 도전’ 광주FC, 내달 17일 요코하마와 첫 경기

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대진 확정  
말레이시아·태국·일본·중국 리그  
8개 팀 상대 홈 4경기·원정 4경기  
12개 팀 중 8위까지 16강 진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다음 달 17일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J1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도전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16일(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테이지 대진 추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첨 결과 광주FC는 홈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와 조호르 다룰탁집 FC(말레이시아), 상하이 선화(중국), 부리람 유나이티드 FC(태국)를 상대하고 원정에서는 가와사키 프론타레와 비셀 고베(이상 일본), 상하이 하이강, 산둥 타이산(이상 중국)을 만난다.

광주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호주 등 장거리 원정을 피한 동시에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 원정을 떠나게 되면서 체력 소모

| 2024-25 AFC CHAMPIONS LEAGUE ELITE LEAGUE STAGE<br>MATCH SCHEDULE |                                                   |  |  |
|-------------------------------------------------------------------|---------------------------------------------------|--|--|
| vs 요코하마 F. 마리노스<br>2024.09.17 (토) 19:00<br>광주월드컵경기장               | vs 상하이 선화<br>2024.11.27 (수) 19:00<br>광주월드컵경기장     |  |  |
| vs 부리람 유나이티드 FC<br>2024.10.01 (토) 19:00<br>도도루카 육상 경기장            | vs 상하이 하이강<br>2024.12.03 (토) 21:00<br>무동 스타디움     |  |  |
| vs 조호르 다룰탁집<br>2024.10.22 (토) 19:00<br>광주월드컵경기장                   | vs 산둥 타이산<br>2025.02.11 (토) 21:00<br>자닝 톈톈 스포츠 센터 |  |  |
| vs 비셀 고베<br>2024.11.05 (토) 19:00<br>광주월드컵경기장                      | vs 가와사키 프론타레<br>2025.02.18 (토) 19:00<br>광주월드컵경기장  |  |  |

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했으나 상대로 예정됐던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호주)가 2023-2024 A리그 맨 우승을 차지, 본선에 직행하는 부전승 행운을 얻었다.

이번 대회부터 새로 개편된 방식의 ACLE는 아시아 24개 팀이 참가한다. 동아시아 12개 팀, 서아시아 12개 팀으로 나뉘어 홈 4경기, 원정 4경기 씩 리그 스테이지를 치르고 이 단계에서는 같은 국가 팀과는 맞붙지 않는다.

이로써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1 우승 팀 자격의 울산HDFC, 코리아컵(전 FA컵) 우승 팀 자격의 포항스틸러스와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만나지 않고 대진 추첨을 통해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를 제외한 8개 구단과 맞붙게 됐다.

이번 대회 동아시아 리그 스테이지는 다음 달 17일 1차전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9일 8차전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열린다. 리그 스테이지에 참가하는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오르게 된다.

광주FC는 다음 달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창단 첫 아시아 무대를 시작한다. K리그에서 활용 중인 광주축구전용구장의 경우 전체 1만7석 중 8460석이 가변식 형태로 광주FC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맞추기 위해 ACLE에 한해 홈경기장을 옮긴다.

아시아 무대 첫 경기를 치른 뒤에는 10월1일 오후 7시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도도루카 육상 경기장으로 떠나 가와사키 프론타레를 상대로 첫 아시아 원정에 나서게 된다.

한규빈 기자

## 광주시체육회, 제28회 한·일 청소년스포츠 교류 참가

광주시와 일본 오카야마현 청소년들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진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제28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개최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는 양 국가 간 우호와 이해증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18-23일 일본 오카야마현서  
축구·배구 등 5종목 218명

과 스포츠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류는 일본 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한

다.

한국 선수단은 우산초, 문정초, 수피아여중, 경신중학교 등 광주지역 초·중학교 선수 184명과 임원 34명 등 총 2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 참가를 위해 1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국선수단은 일본선수단 218명과 오카야마현 종합경기장과 로쿠지 후쿠다 공

원 체육관 등 5개 경기장에서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친선 경기를 갖는다.

앞서 양국 선수단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축구·배구·탁구·배드민턴·농구 등 5개 종목에서 친선 경기를 하며 화합을 다졌다.

최동환 기자